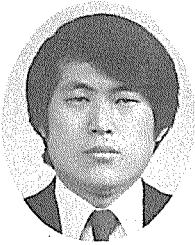


— 政府는 이렇게 생각한다 —

國際石油市場 動向과 原油導入 政策方向



金 鍾 寅

〈動力資源部 原油課·化工技佐〉

最近 國際石油市場은 2次 오일쇼크 以後 産油國의 市場原理를 無視한 과도한 油價引上으로 인한 石油需要의 減退로 81年 이후 石油需給은 供給 過剩 狀態를 보이고 있으며, 價格은 現在 混迷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本稿에서는 지난해 10월29일 제61차 OPEC 總會에서의 油價單一化 合意 이후의 國際石油市場 動向과 앞으로의 展望, 그리고 우리나라의 原油 導入 政策 方向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 國際 石油市場 動向

最近 國際 石油市場 動向은 크게 61次 OPEC 會議의 油價單一化 合意, 82. 1. 1 부터 中·重質의 價格引下, 이란의 一方的인 油價引下 및 大規

〈表-1〉 主要先進國의 成長率 및 自由世界石油消費

	'79	'80	'81	'82
OECD 成長率(%)	3.3	1.3	1.3	1.3
石油需要 (百萬B/D)	51.6	49.0 (△5.4%)	46.5 (△5.1%)	44.6~43.3 (△4~△7)

資料：BP統計, GULF, PIW

〈表-2〉 在庫放出量

	'81. 4/4	'82. 1/4	'82. 2/4
在庫放出量 (百萬B/D)	340	390	230

資料：GULF, IEA

模 物量투여, 英國을 선두로 멕시코 이집트등 非 OPEC의 油價引下, 63次 OPEC 總會에서의 現油價 34\$/B고수 및 79年 最高 31百萬B/D에 달했던 産油量의 1,750萬 B/D로의 減産合意로 規定 지을 수 있다.

가) 需給動向

世界石油 需給은 2次 오일쇼크 以後 世界景氣沈滯의 長期化와 景氣回復의 지연, 主要先進國의 에너지 消費節約과 代替에너지 開發로 인한 石油需要의 減退와 國際石油 會社의 300~400萬B/D相當의 높은 在庫放出, 이란의 OPEC 基準油價 보다 4\$/B 引下된 價格으로 판매 및 約 250萬B/D의 增産計劃 發表와 25~26\$/B線으로 現物市場의 介 入 및 非OPEC의 꾸준한 增産으로 공급과잉을 나타내고 있으며, 참고로 '81년 부터 '82. 1/4 분기까지의 자유세계 수급은 〈表-3〉과 같다.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으로 81. 3. 19. 제63次 OPEC 임시총회에서 OPEC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34\$/B의 基準油價를 방어하기 위해 最大生産 能力이 3,444萬 B/D이며, 財政上 必要物量이 2,268萬 B/D임에도 不拘하고 70年代 以來 最低生産量인 1,750萬B/D로 合意하는 高油價政策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表-4 參照)

나) 原油價格動向

'81年 初부터 나타난 供給過剩 現象으로 原油價格은 81. 10. 29. 제61次 OPEC 會議에서 從前의 基

□ 特輯：原油導入 □

準油價를 最大 36\$/B로 하고 民高 41\$/B 까지 許容, 多元化 되었던 價格體系가 基準油價 34\$/B, 油種間格差(Differentials)와 地理的 位置를 勘案하여 최고 38\$/B까지의 油價單一化 體系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 因해 OPEC 油價體系는 2次 오일쇼크 이후 공식·비공식적으로 要求하던 프레미엄과 產油國마다 多元化 되었던 油價體系가 約 3年만에 다시 油價單一化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또한 81.12.9의 제62차 OPEC會議에서는 82.

1.1부터 34~38\$/B에서 34~37\$/B로 油種間價格差를 縮少하고 B-C油의 石炭과의 價格 경쟁력을 提高하기 爲하여 中·重質油價를 約20~70¢/B씩 引下시키기로 合意한다. 그러나 '82.2월에 들어와서 이란은 전쟁부구를 위한 財務調達을 爲하여 세차례에 걸쳐 4\$/B를 引下하고 約 250萬B/D를 世界市場에 umping(酬)을 발표하고, 아프리카產 輕質油와 비슷한 性狀을 가진 英國이 두차례 걸쳐 5.5\$/B를 引下하여 OPEC은 심한 價格引下 압력

(表-3) 自由世界石油需給

(單位：百萬B/D)

	'81					'82
	1/4	2/4	3/4	4/4	年平均	1/4
消費 (A)	48.4	44.9	44.9	47.7	46.5	47.6
美 國	16.9	15.6	15.8	16.3	16.2	16.3
日 本	4.9	4.4	4.0	4.6	4.5	4.8
西 歐	13.7	12.0	12.0	13.6	12.8	13.3
其 他	12.9	12.9	13.1	13.2	13.0	13.2
在庫調整 (B)	△0.6	+ 1.7	△ 1.0	△ 3.4	△ 0.8	△ 3.9
實需要 (A)+(B)	47.8	46.6	43.9	44.3	45.7	43.7
供 給	47.8	46.6	43.9	44.3	45.7	43.7
O P E C	24.9	23.1	20.8	20.7	22.4	19.9
(사우디아라비아)	(10.0)	(9.9)	(9.8)	(8.9)	(9.7)	(7.7)
(其 他)	(14.9)	(13.2)	(11.0)	(11.8)	(12.7)	(12.2)
非 O P E C	22.9	23.5	23.1	23.6	23.3	23.8

資料：Gulf's Short-term Out Look, Texaco 等 綜合

註) * 표는 NGL 및 共產圈 純輸出포함

(表-4) OPEC의 財政上 必要量 및 82. 3. 19 OPEC 회의시 生産쿼타(Qutar)量

(單位：千B/D)

	最大生産能力	1979	'82. 1	生産 쿼 타	財政上必要生産量
사 우 디	11,300	9,529	8,650	7,650	6,410
리 비 아	2,100	2,066	800	750	1,070
쿠 웨 이 트	2,800	2,513	805	800	900
U. A. E.	2,485	1,831	1,383	1,000	810
카 타 르	650	506	403	300	60
이 란	3,000	3,118	1,100	1,200	3,610
이 라 크	4,000	3,451	1,300	1,200	2,110
나 이 지 리 아	2,400	2,302	1,750	1,300	2,230
알 제 리	1,200	1,116	700	650	1,200
가 봉	250	205	140	150	160
베 네 수 엘 라	2,400	2,356	1,950	1,500	2,400
에 콰 도 르	250	214	200	300	220
인 도 네 시 아	1,600	1,595	1,492	1,300	1,500
計	34,435	30,802	20,673	17,500	22,680

資料：PIW

을 받게 된다. 소비국들은 OPEC의 유가인하를 유도키 위해 재고방출을 과감히 늘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OPEC은 제63차 OPEC 임시 회의를 3.19. 개최하게 된다. 여기서 OPEC은 OPEC회원국의 재정난으로 인한 減産余力不足, 이란, 北海, 멕시코의 油價引下와 나이지리아의 油價引下 約束 등으로 OPEC 基準油價의 引下가 不可避할 것이라는 一般予想을 뒤엎고 34\$/B의 油價를 維持키로 合意하였으며 특히 OPEC 生産 上限線을 1,750萬B/D로 設定했으며, 輕質油의 油種間格差를 78年 水準으로 환원하고, 「시장 감시 委員會」를 設置키로 合意한다.

이러한 OPEC의 決定은 産油國과 國際石油資本(MAJOR)과의 상당한 不協和音을 表面化 시켰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회의結果에 관계없이 3.1.부터 소급하여 약 5\$/B油價引下를 약속한 바

있었으므로 회의적후 메이저들의 인수거부로 會議前 130萬B/D이던 産油量이 會議後 63萬B/D로 半減하였다. 이에 사우디등 OPEC은 즉각 인수거부 會社들을 Black list로 作成하여 모든 原油供給을 中斷하겠다고 맞서서 결국 메이저들이 굴복한 상태에 있다. 또한 OPEC은 나이지리아에 對해 約10억 \$의 財政支援을 하기로 合意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사우디의 태도이다. 사우디의 야마니 石油相은 1979年以後의 OPEC油價引上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위해, 直接的인 油價引下는 또 다른 經濟的混亂을 가져 오므로 이를 피하고 現 34\$/B 基準油價를 83年末까지 凍結함으로써 인플레이에 依한 實質油價를 引下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또한 사우디는 石油政策을 短期的이거나 表面的인 아니고 長期的인 市場狀況을 考慮하

〈表-5〉 主要油種의 公式價格 變動推移

(單位：\$/Bbl)

	'81. 9	'81. 11	'82. 1. 1	'82. 2. 5	'82. 2. 12	'82. 3~
사우디 (A-L)	32.00	34.00	34.00	—	34.00	34.00
사우디 (A-H)	31.00	31.50	31.00	—	—	31.00
이란 (I-L)	37.00	34.20	34.20	33.20	32.20	30.20
이라크 (Basrah-L)	35.96	35.96	34.21	—	—	34.21
나이지리아 (Bonny-L)	40.00	36.50	36.50	—	—	36.50
알제리 (Zueitina)	39.90	37.50	37.00	—	—	37.00
쿠웨이트 (Kuwait)	35.50	33.00	32.30	—	—	32.30
UAE (Murban)	36.46	35.70	35.50	—	—	35.50
베네수엘라 (Laguna)	23.80	24.09	23.70	—	—	21.20
멕시코 (Isthmus)	36.50	35.00	35.00	—	—	32.50
영국 (Forties)	35.00	36.50	36.50	35.00	—	31.00
노르웨이 (Ekofisk)	36.00	37.50	37.50	36.00	—	32.00
이집트 (Suez Bl)	36.00	35.00	35.00	33.00	—	32.00
소련 (Export)	35.56	35.56	35.20	—	—	31.20

資料：OGP, AP-DJ, PIW

여 樹立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우디는 34\$/B維持와 需給安定을 위해 必要하다면 追加 減産도 斷行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4. 21 세계 석유市場의 狀況을 檢討키 위한 U A E,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알제리 4 國 石油相으로 構成된 「시장감시 委員會」 會議結果 지난번 OPEC의 市場 부양책에 힘입어 油價引下壓力이 완화되고 石油市場이 好轉되는 기미를 보이기 始作했다고 分析했으며, 石油会社들의 在庫油 放出이 4月末로 完了되어 4/4分期에는 OPEC 生産量이 1,900 萬B/b 水準으로 回復될 것으로 전망하고 34\$/B 基準油價를 維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5. 20 次期 總會에 建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最近의 價格動向은 石油價格秩序가 混亂狀態에 있으며 OPEC은 油價를 방어키 위해, 消費國들은 油價引下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다) 現物市場 動向

81年 여름 以後 現物價格은 79年 以後 最初로 公式價格을 下廻하기 始作하여 保合狀態를 維持하다가 OPEC의 油價單一化를 계기로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다가 82. 1月 以後 油價는 急落勢를 나

타내어 3月中旬에는 28\$/B까지 下落하게 되었다. OPEC의 減産으로 4月初는 30\$/B, 최근에는 30.5\$/B 까지 상승하였다.

최근의 現物油價가 上昇하게 된 것은 미국政府가 5. 1부터 3~5\$/B의 石油輸入關稅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루머와 OPEC 減産合意로 困한 心理的 영향, 시리아의 이라크 送油管 閉鎖, 이스라엘을 둘러싼 戰雲, 南大西洋의 情勢不安에 따른 投機購買의 增大로 起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 國際石油市場 전망

앞으로의 石油市場 展望은 한마디로 매우 不透明하다.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첫째, 이란의 投売 行爲가 언제까지 持續될 것인가, 둘째 財政壓迫을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OPEC의 支援이 充分하여 나이지리아가 34\$/B 維持에 好意할 것인가, 셋째 北海産 油價 31\$/B은 6月 以後에도 繼續 維持될 것인가, 넷째 國際石油会社의 在庫放出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의 石油市場을 左右할 것으로 전망되

〈表-6〉 主要 OPEC 會議決定事項

	61 次	62 次	63 次	OPEC 감시위원회	64 次
區 分	臨時會議	定期總會	臨時會議	臨時會議	定期總會
日 時	81. 10. 29~30	81. 12. 15~16	82. 3. 19~20	82. 4. 21~22	82. 5. 17~20 (予定)
開 催 地	빈	야부다비	빈	빈	퀴 토
主要合意事項	○11. 1부터 油價單一化 - 基準價格 : 34\$/B - 油種間格差 및 地理의 位置考慮 38\$/B까지 許容 ○82年末까지 油價凍結 ○사우디 11. 1부터 1백萬B/D 減産	○油種間價格差 縮少調整 - 最高價格 37\$/B ○페르샤만中·重質油價 0.2~0.7\$/B引下	○現基準油價고수 ○輕質油價의 油種間價格差를 1971年水準으로 환원 ○OPEC 生産上 限線 1,700萬 B/D로 合意 ○OPEC 감시위원회 설치	○石油市場狀況이 好轉되기 始作했음 ○34\$/B 油價방어가 可能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감산도 불사	

며, 특히 앞으로의 1~2個月이 고비가 될 것이다. OPEC 産油國들은 西方石油會社들의 在庫放出이 하루 約 4百萬 배럴에 달하고 있어 予想대로 下半年부터 景氣回復이 나타날 경우, 今年 가을경에는 과잉在庫가 사라지고 겨울철 石油消費 增大가 나타나면서 油價가 다시 強勢를 보일 것으로 主張하고 있다. 이에 반해 西方石油專門家들은 石油會社의 在庫放出은 하루 約 2百萬 배럴에 不過하다고 主張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최소 8~9個月 동안 공급과잉 현상을 나타낼 것이며, 今年 下半年에 景氣回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効果는 制限의 일 뿐이므로 적어도 83년까지는 油價下落이 繼續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長期的으로는 80年 以後의 需要不振의 原因이 景氣 沈滯때문이나 아니면 에너지 消費節約과 代替에너지 開發에 起因한 것이냐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大別되나 原油埋藏地域의 구조적 취약성과 소련의 原油輸入國으로의 전환 전망등 장기적으로는 供給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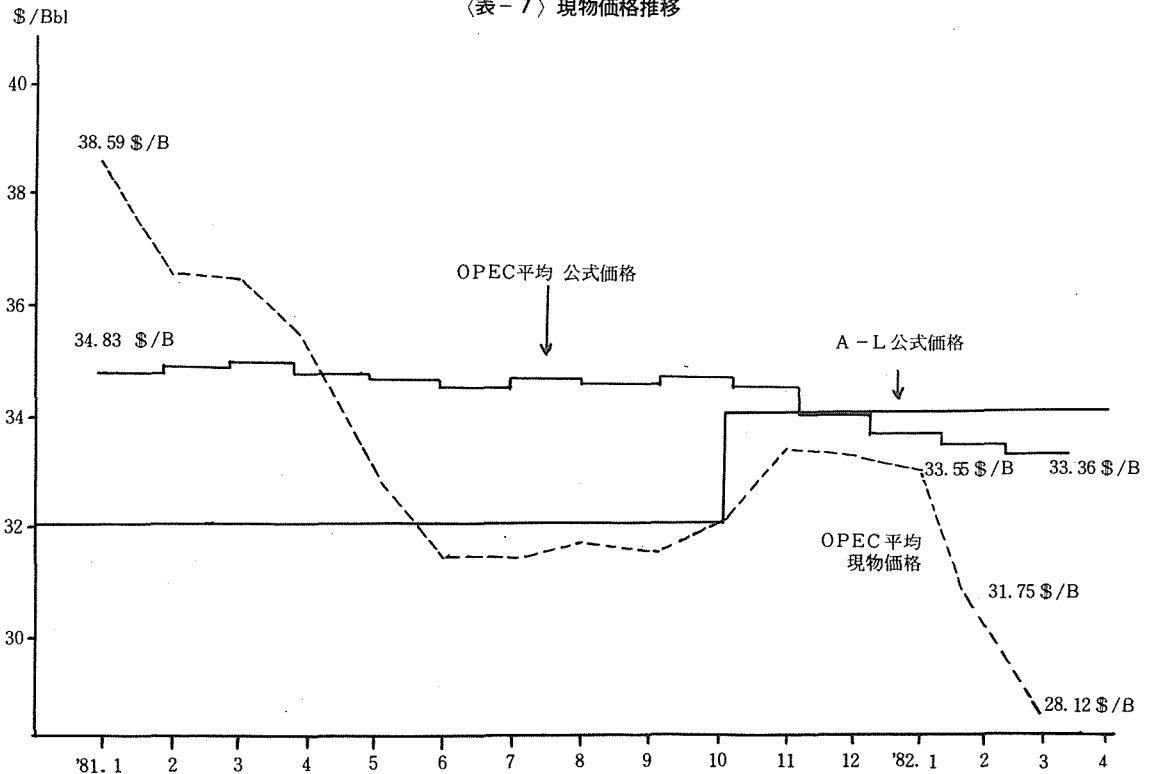
Ⅲ. 原油導入 政策方向

所要 原油의 全量을 海外에서의 輸入에 依存해야 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必要한 原油를 適期에 저렴한 價格으로 安定的으로 確保하여 導入하는 것이 基本命題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原油導入 現況을 살펴보고 原油導入 政策方向에 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가) 原油導入現況

우리 나라의 原油導入은 1962年 10月 大韓石油公社가 設立된 후 하루 3.5萬 배럴의 精油工場 施設을 63年 12月에 完工하여 合作會社인 걸프를 통하여 64年 1月末 “Gulf Itialia” 号에 쿠웨이트 原油 32萬 배럴을 導入한 것을 始初로 하여 64년에 5,835 千 배럴을 導入했으며 81년에는 182,816 千 배럴까지 크게 擴大되었다. 이는 物量으로는 31倍, 年平均 22.5%의 增加率을 나타냈으며 81年, 82年 中에는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퇴로 1.4%감

〈表-7〉 現物價格推移



소, 0.02% 감소를 시현하였다. 導入國別로는 78년까지 大部分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에서 導入했으며 2次 오일쇼크 以後 原油導入先, 多邊化의 推進으로 79年 4/4分期부터 인도네시아, 80年 8月 부터 베네수엘라, 81년에는 멕시코, 말레이시아, 에콰도르로부터 原油를 導入하여 8 國에 이르렀으며 82년에는 UAE, 리비아와 브루네이가 추가되어 11개국이 될 전망이다. 導入先別 導入実績을 보면, 78년까지는 全量 메이저에 依存하던 것을 2次 오일쇼크 以後 産油國의 資源 民族主義대두, 消費者와의 直去來 販賣政策으로 메이저의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이에 부응 79年 4月 사우디로부터의 5萬B/D 導入을 始作으로 直導入을 推進하여 81년에는 直導入 物量이 64%에 達하게 되었다.

또한 78년까지 全量中東依存했던 原油導入도 導入先 多邊化 推進으로 81년에는 88.2%까지 減少하였다.

原油輸入 代錢은 64年 1,250萬\$에 불과했던 것이 1·2次 오일쇼크를 거치는 동안 急激히 增加하여 81년에는 6,504백만\$에 이르렀으며 국제수지 악화의 主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나) 原油導入 政策方向

82.3.11 政府는 2次 오일쇼크 以後 國際原油價가 多元化 되어 79.7.10부터 安定기금제도를 導入 運用했던 原油價平準化 制度를 廢止하고 原油導入에 경쟁원리를 導入했으며 앞으로 油價自律化를 漸進的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原油가 國民經濟의 동맥으로서 全量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主要에너지로서 原油가 차지하는 比重을 고려할 때 需給安定化를 기할 수 있는 最少限의 장치를 마련하여 安定的인 확보기반 조성은 계속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推進해야 할 原油導入 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은 시책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長期供給契約에 의한 導入優先

原油의 속성 및 非常時를 고려하여 精油社가 加급적 장기계약에 의해 도입케 하되 SPOT 형식으로 購入할 수 있는 物量은 前年度 長期契約에 의한 導入物量의 一定 範圍로 限定하고, 나머지는 長期契約에 依해 所要原油를 調達토록 유도하여 나가겠다.

② 原油導入先 多邊化의 推進

導入先 多邊化 대상地域이 中東보다 輸送거리가

〈表-8〉 原油導入 実績

(單位：千Bbl)

原油別 年度別	쿠웨이트	사우디	이란	中立地帶	其他	合計		增加率(%)
						千Bbl	千kl	
64	5,835	—	—	—	—	5,835	928	—
65	7,137	—	4,033	—	—	11,170	1,776	91.3
66	8,513	—	5,689	—	—	14,202	2,258	27.1
67	1,023	—	7,435	—	—	18,458	2,935	29.9
68	17,997	—	18,412	—	—	36,409	5,788	97.3
69	24,464	12,545	18,880	—	—	55,889	8,885	53.5
70	24,998	21,995	22,197	—	—	69,150	10,994	23.7
71	43,984	30,549	10,892	—	—	85,425	13,581	23.5
72	46,628	36,867	2,824	5,542	720	92,581	14,719	8.4
73	19,401	63,411	4,554	15,844	—	103,210	16,409	11.5
74	18,886	73,713	3,305	16,799	—	112,703	17,918	9.2
75	53,637	51,861	882	10,194	1,221	117,795	18,727	4.5
76	52,406	52,640	14,234	10,901	2,226	132,407	21,050	12.4
77	49,657	83,396	16,766	912	3,818	154,549	24,574	16.7
78	50,789	95,840	12,912	3,854	3,137	166,532	26,476	7.8
79	59,887	98,865	19,809	847	6,105	185,513	29,498	11.4
80	49,530	111,855	15,515	1,693	4,268	182,861	29,072	△ 1.4
81	38,753	104,914	14,496	3,047	21,606	182,816	29,065	△0.02

〈表-9〉中東依存度 및 原油導入先別 推移
(單位：%)

區 分	78	79	'80	'81
中東依存度	100	99	97.4	88.2
導 入	G-G	10	29	33
	D-D	—	2	18
先 別	메이저	100	88	53
	計	100	100	100

〈表-10〉原油輸入代錢 推移

區 分	64年	70年	80年	81年
原油輸入代金 (百萬弗)	12	119	5,654	6,504
G N P 의	0.4%	1.5%	9.9%	10.3%
총 수입 의	3.4	6.6	25.4	27.0
총 수출 의	10.5	13.5	32.3	31.1

〈表-11〉原油導入先 多邊化 現況 및 推進目標

●多邊化 現況 (單位：%)

區 分	中 東	亞細亞	中南美	其 他	計
'81	88.2	5.3	5.7	0.8	100
'82(1-3)	79.4	12.1	8.5	—	100

●多邊化推進目標

	'81	'82	'86
中東依存度 (%)	88.2	80	60
導入國數(個國)	8	11	15以上

더 소요되며 또한 대상지역의 原油價格이 高價에서 多邊化 대상地域에서 導入時 追加로 發生하는 輸送운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原油導入先 多邊化를 漸進的으로 經濟性을 考慮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個産油國에 50% 以上 依存하는 것을 가급적 避하고 現在 導入國數의 多邊化는 상당히 進展하였으나, 앞으로는 導入量의 多邊化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③ 産油國과의 紐帶強化

1·2次 오일쇼크 以後 産油國의 生産, 販売權 掌握으로 實需要者에 直接販売傾向 및 産油國의 資源民族主義에 対応하고 MAJOR의 地位 쇠퇴에 부응하여 政府는 産油國 主要人士 招請 및 訪問의 資源外交를 전개하여 양국간 이해를 增進시키고 精油社와 民間商社를 통한 民間交流를 확대해 가고 있으나 産油國과의 多角的인 經濟協力을 심화하여 原油導入國과의 紐帶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해야겠다.

④ 低硫黃 原油 確保

政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81. 7부터 우선 서울 지역에 저유황 연료유 공급을 시작한 이래 82년에는 京仁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점진적으로 저유황 연료유 공급지역을 환경청과 협의, 擴大해 갈 계획이므로 精油社가 必要한 유황 원유를 적기에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支援하고 또한 長期的으로 는 탈황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가야 겠다.

⑤ 油田開發의 積極推進

原油를 確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나라가 油田開發에 參與하여 開發輸入을 하는 것이므로 現在 開發中인 주변 대륙붕의 積極개발 및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것과 같이 海外 부존유망지역의 油田開發에 積極 參與하여 개발수입이 하루 빨리 이루어 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⑥ 民間商社의 原油導入

80. 4 政府는 民間商社의 原油導入을 許容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實需要 精油社와 事前에 合意하여 導入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속 「1個産油國 1個商社」 原則의 범위내에서 導入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상 대략적으로 原油導入 政策方向에 대하여 살펴 보았지만, 앞으로의 原油半入은 精油社가 스스로 必要原油를 安定的으로 確保해 나가야 하는 것이 基本方向이므로 政府는 精油社의 原油導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行政的인 支援 및 指導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귀찮다고 外面말고 수상한자 申告하자